

사도신경 강해 4강 보조자료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I. 리뷰(Review) : 예수, 그리스도

1. 예수 = 그리스도 = 메시아 = 기름 부음 받은 자

- (1) 선지자 : 우리의 스승
- (2) 제사장 : 다리 놓는 사람, 대속, 제물
- (3) 왕 : 통치와 다스림, 나라

2. 우리 = 그리스도인

- (1) 선지자 : 자기부인, 자기 십자가
- (2) 제사장 : 회개, 정결한 삶
- (3) 왕 : 충성, 순종,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

II. 4강 주요 문답 내용

1. 31문과 31답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31답)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¹⁾>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도덕의지로써 인간들을 다스리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행한 선악 간의 모든 일을 판단하시며 인간들이 지성과 의지로써 창조목적에 이바지하며 살도록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덕의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창조 목적을 떠난 하나님의 도덕의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기초로 참회하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창조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랑의 감화이니, 곧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 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내면으로부터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에 의한 사랑의 감화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감화는 거룩함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곧 사랑의 경험이며, 신자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의 신비로운 조화를 경험합니다.

2. 32문과 32답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까?

32답)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3. 33문과 33답

33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33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4. 34문과 34답

32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32답)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1) 김남준,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17-23.